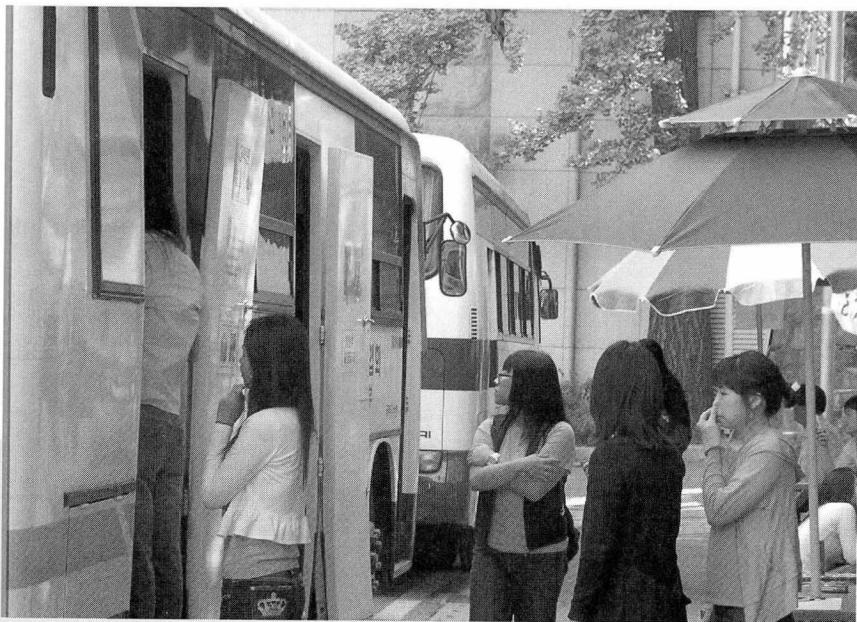


결핵에 대해 깊이 알고 있는 현장의 김진요원이라면  
단 한 명이라도 결핵에 걸리지 않고 여전히 밝게 웃고 장난치는 학생이기를,  
하는 바람을 한 번쯤은 가져보았을 것이다.



결핵 없는  
밝은  
학교를  
위해!

글 | 진광열(본부 검진과)



“빵하고 우유는 안 주세요?”

일년 내내 빈틈없는 스케줄로 전국을 누비고 다니는 대한결핵협회 엑스선 이동 검진팀이 학교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아이들의 애교어린 질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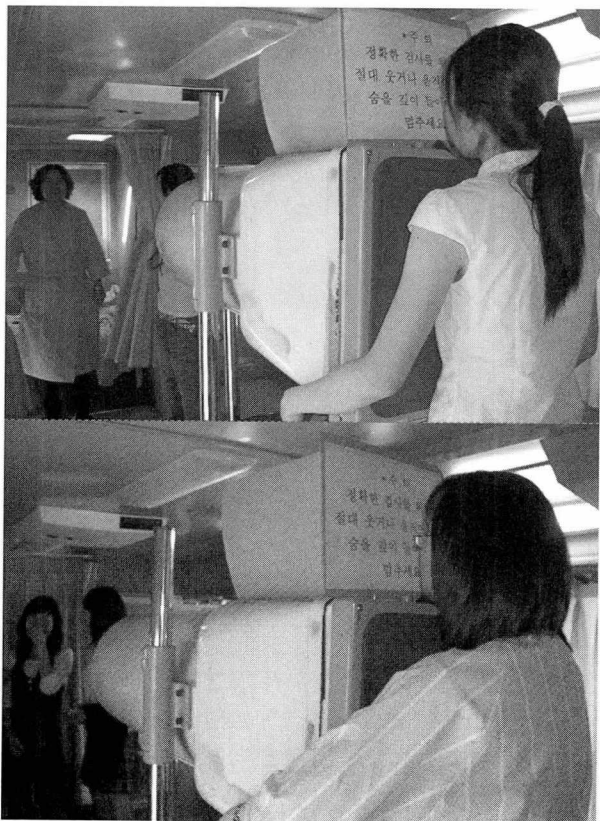
이 질문을 접하는 검진요원들의 표정을 잠시나마 상상해 본다면 대한적십자사 혈액원 차량으로 오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황당함과 동시에 힘든 일과 중에서 잠시나마 '피식' 하고 웃고 있는 모습이 떠오른다. 그런 상황에서 학업과 관심 있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집중력을 갖기 힘든 아이들에게 현장의 결핵 홍보맨(?)으로서의 사명감을 발휘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검진을 받으러 나오는 아이들에게는 한결같이 검사에 대한 긴장된 모습을 찾지 못하는데 까르르~ 깔깔깔~ 친구들끼리 서로 장난치는 모습이 산만하기 그지없다. 아마 그들에게는 검진을 위해 수업을 잠시 중단한 상황만이 대단히 만족스러운 모양이다.

결핵에 대해 깊이 알고 있는 현장의 검진요원들은 때때로 이 아이들이 예의 없음에 혀를 꼰꼰 차기도 하지만, 단 한 명이라도 결핵에 걸리지 않고 여전히 밝게 웃고 장난치는 학생이기를, 하는 바람을 한 번쯤 가져보았을 것이다.

학생 결핵환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그러나 최근의 우리나라의 결핵상황은 현장의 검진요원들이 바라는 작은 소망



들이 현실화되기에는 더 많은 어른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보도를 통해 이미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져 있지만 경기도와 부산 그리고 전남지역에서의 학교내 결핵집단발병 사례와,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그 외의 집단 발병 사례들은 결핵퇴치를 위해 일하는 많은 사람들을 우울하게 하고 있으며, 밝게 웃던 아이가 지난한 화학치료과정과 주위환경의 변화를 감내해야 한다는 사실에 다시금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다.

더불어 통계상의 수치도 학생들의 결핵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협회 결핵연구원의 전국 결핵정보감시체계(KTBS)에 신고 집계된 학동기와 청소년기라고 할 수 있는 6세~18세까지의 신환자 신고현황을 살펴보면 2004



년도에 1,642명, 2005년도에는 1,715명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2006년도에는 9월말까지의 집계에 불과한 데도 1,912명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신고율이 그다지 높지 않음을 감안하면 우려스런 상황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겠다.

집단 발병의 원인으로 BCG 접종으로 인한 인공면역 효력감소, 학업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 다이어트와 과로로 인한 면역체계 이상과 PC방 등의 실내생활 위주의 생활패턴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있는 것도 학생들에 대한 결핵관리가 쉽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다.

### 현재 학생들의 결핵관리는 이렇게 되고 있다

이번 보도를 통해 알려진 학생결핵 이슈 확산의 단초를 제공하게 된 학생 결핵 검사의 역사를 잠시 살펴보면, 1953년 보건부의 학교결핵관리지침에 의하여 국내 처음으로 실시된 엑스선 집단검진이 그 시초라 할 수 있다. 1953년 보건부에서 문교부와 국방부 합동으로 전국 300개교 고등학생 10만여 명과 58개교 대학생 2만5천 명을 대상으로 최초의 조직적인 대규모 학생집단검진을 실시, 총 9,496명을 검진하여 466명의 환자를 발견하였다.

그 후 1954년 중앙결핵원 창설 후 1956년까지 5대의 엑스선장비로 초등(국민) 학교와 중학교를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했으며, 1967년 3월 학교보건법 제정과 1970년 9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현재까지 중학생과 고등학생 일부

를 대상으로 시행 중에 있다.

이러한 세부사업의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학교 현장검진 팀으로부터 촬영된 엑스선 영상은 대한결핵협회 중앙현상실과 12개 시·도지부 판독위원회의 판독을 거쳐 학교와 보건소로 결과가 통보되며, 결핵유소견자는 보건소의 2차 정밀검사(엑스선직접촬영, 객담검사)를 거쳐 치료환자와 요관찰 대상으로 분류 관리된다. 동일 학교에서 2명 이상의 객담도말검사 양성자와 3명 이상의 활동성 결핵환자가 발견될 경우 집단 내 결핵유행발생 '의심'으로 간주,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가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다.

## 더 많은 관심과 노력으로 결핵 없는 밝은 학교를 만들자

우리협회는 반세기 이상의 국가결핵관리 경험을 통해 상당히 효과적으로 우리나라 결핵을 관리하여 왔고, 그 관리체제 또한 모범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의료기관의 낮은 치료성공률로 인한 다제내성(MDR) 결핵환자 증가 및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등 여전히 많은 문제가 산재해 있다. 결핵 연구에 대한 투자미흡 그리고 전문적인 결핵관리 인력의 공급부족 등 결핵문제의 크기는 많이 줄었지만 결핵퇴치선언이라는 꿈같은 상황을 만들어 가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데 결핵과 관련된 모든 이들의 공통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06년에 정부에서도 결핵퇴치 2030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전략을 마련하였는데, 이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에 불거진 학생 결핵관리 문제를 접하고 놀라온 것은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태도였다. 혁신을 강조하는 정부답게 발 빠른 대응과 조치들은 국가결핵관리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협회마저 무색하게 하는 데 부족함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며 앞으로 최신 검진장비 및 검사기술을 도입하고 별도의 학교 내 결핵관리지침을 마련하여 하루 빨리 학생들이 결핵으로부터 자유로운, 건강한 학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그래서 학교를 방문하는 이동검진차량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는 결핵이 없어요'라는 표정으로 당당히 검사에 응할 수 있기를기대해 본다. 그런 의미에서 검사 직전까지도 짓궂게 장난치는 학생들에게 많이 먹고 건강하라는 뜻으로 빵과 우유를 한 번 나눠줘 볼까 하는 엉뚱한 상상도 해본다. †